

“속옷차림으로 맞는 첫 세상 ... 광주일보는 인생 나침반”

32년간 광주일보와 하루 시작하는 광주 동천동 김정암씨

“사회흐름 진단엔 신문이 최고 시대역사 배우고 자녀교육까지 100년 신문으로 더욱 정진하길”

“광주일보와 반평생 가까이 보냈 습니다. 아침 속옷 바람으로 가장 먼 저 만나는 게 광주일보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끊임없는 혁신 을 도모하는 광주일보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믿음가는 기 사 그 것 뿐일 겁니다.”

김정암(79·광주시 서구 동천동)씨 의 하루는 광주일보로 시작된다. 새 벽 5시에 일어나 현관 문 앞에 놓인 광주일보를 집어 들고, 1시간 넘게 정 독해야만 비로소 하루의 시곗바늘이 돌아간다.

어쩌다 제시간에 신문이 놓여있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를 거는 통에, 광 주일보 지국장과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의 사이가 됐다.

“아침에 광주일보를 읽지 않으면 궁금증이 쌓여 못 참겠다”는 그의 애 정은 지난 1981년부터 32년 동안 변 함이 없다. 1980년 12월 1일 옛 전남

일보와 구 전남매일이 통합해 광주일 보로 창간된 직후부터 애독자로 매일 신문을 만나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광주일보처럼 뚜 렷한 논조로 기사를 쓰는 신문을 찾 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이 광주일보 한 부에 모두 들어있기도 했고요, 신문사가 우후죽순 생긴 후 로도 그 믿을 하나로 꾸준히 구독했 습니다”

광주일보가 20일로 창사 61주년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포함)을 맞는다는 소식에 “회갑 신문”이 되 기까지 절반을 넘게 함께 보낸 셈”이 라며 “100년 신문”이 될 때까지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중년시절, 광주일보는 그에게 큰 힘이였다. 가 족과 마주 앉는 아침 식탁에서 복기 하듯 기사 내용을 알려주는 ‘밤샘머

리 교육’을 통해 여섯 자녀(2남 4녀) 모두를 4년제 대학에 보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광주 일보에서 읽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풍부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광주일보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 각과 내용의 정확성이 다른 신문보다 뛰어나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어, 정말?’해 주는 맛이 있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은 TV 뉴스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신 문을 보느냐’고 말하는데, 그건 모르 는 말이지요. 순간만 보고 잊어버리는 영상매체와 달리, 신문과 같은 활자 매체는 다시 돌아보며 오늘날 왜 이 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 과를 판단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 다. 이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는 것엔 신문만한 게 없죠.”

70고령에도 지난 2005년 송원대학 토목계열에 입학, 20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79명의 졸업생 가운데 차석(2등)을 거두게 한 원동력도 광 주일보에 있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30여년 동안 사회교 육자로서 헌신한 후 은퇴한 지금도, 광주일보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 복지분야에 도전 해 볼 생각입니다. 신문에 나온 복지 단체, 시설이 있으면 눈여겨 봐요. 어 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배울 점은 무 엇인지 파악한 후에 수첩에 메모를 해두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벌써 땀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한층 밝아진 신문편집 덕분에 눈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며 나이 든 자신 을 자신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아 고맙다는 감씨.

광주일보에 대한 사람은 죽을 때까 지 이어질 것이라고 김씨는 힘주어 말했다.

“광주일보는 창간 때부터 지금까 지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많은 일 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고, 어떤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흔들리는 국민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편편한’기사를 써주 길 바랍니다.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 사,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기사 등 삼 박자를 고루 갖춰 광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도 으뜸신문으로 꼽을 수 있 는 광주일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글·사진=박정렬기자 halo@



32년 동안 광주일보를 구독해 온 김정암씨는 매일 새벽 1시간 동안 광주일보를 꼼꼼히 읽은 뒤에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한다. 김 씨가 거실에서 광주일보를 읽고 있다.

나침반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 재심·형사보상

대법원이 유신체제에서 선포했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도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아한 사진 보게 해줘” 수감자 패소

○성범죄 수감자가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없도록 한 대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광주 교도소 수감자 A(45)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졌는데,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 등 선정적인 사진 200장을 소지.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영치품(사진)을 검토한 뒤 교화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 등 선정적인 사진 200장을 소지.

시골 노인 등친 사기꾼

한우 24마리 외상 매입, 돈 떼먹고 도주

고흥경찰은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축산물 매매업자 황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0여 년

전부터 지난 4월까지 고흥·장흥·해남·보성·완도 등 5개 군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10여곳을 찾아가 외상으로 24마리를 구입한 뒤 대금 314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

은 혐의다.

경찰은 황씨가 시골에서 소규모로 한우 사육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판 돈은 도박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여수 금고털이 주범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주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전 경찰관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계획적이고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과장이 컸던 점, 특히 공범이 자수할 당시 단독범 형으로 사주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밝혔다.

김씨의 친구인 공범 박모(45)씨는 앞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구형받

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틀남 새벽 사이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천만원을 터 험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터 겐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행으로 사주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영광원전 2호기 재가동 5일만에 ‘스톱’

주민들 불안감 고조

지난 14일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영광원전 2호기가 5일 만에 발전을 정지한다.

가동한 지 일주일도 안돼 발전이 정지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영광 2호기의 자동 감발(발전출력을 낮추는 현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감발 이후에는 발전을 정지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 중 교체한 저압 터빈의 진동 수치가 예상보다 높아 감발을 결정했으며, 허용기준 178마이크로메타에 육박한 165마이크로메타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발전 출력을 낮추다가 최종적으로 터빈을 정지시킨 뒤 진동 교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새 터빈을 설치하면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출력을 올려가며 측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압 터빈의 진동수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예상과 달리 높게 측정되는 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측은 그러나 2호기의 감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고·고장 등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영광 2호기는 지난 2월 1일 계획 예방정비에 착수,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설치, 저압 터빈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추가 점검을 위해 예정된 가동 일시보다 6일 연장된 뒤 가동에 들어갔다.

영광 2호기에는 고압터빈 1개와 저압터빈 3개가 설치돼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3명 기소의견檢 송치

경찰 수사결과 발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안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은 18일 오후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 직원 김모(여·29)·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주요 혐의로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사건 일체와 관련해 유선석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2타경 14914	3	목포시 양율로258번길 15, 102동 13층 1301호 [용해동, 용해하이츠맨션] 84.82㎡	아파트	96,000,000	임차인 있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14334	3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772 317㎡ [공유자고 광일빌754-114부] 대 영암군 시흥면 구산리 2195-3 1011.5㎡ 대 영암군 미암면 무암길 47 74.95㎡ [목북8과 지분내용동일] 제시외 다용도실등 12.53㎡	대 대 단독주택	5,696,370 5,696,370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제한있음, 제시외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0325 2013타경 1694 [중복]	1	영암군 시흥면 남산리 23-3 321㎡ [현황지대] 24-1 406㎡ [일부도로] 대 영암군 24-1 99.18㎡ 제시외다용도실등63.8㎡ 주택 영암군 24-2 119㎡ 대 영암군 24-6 63㎡ [일부도로] 대 영암군 24-7 323㎡ [일부건부지] 제시외 축사 36.2㎡ 영암군 24-8 1㎡ [현황도로] 전	대 대 대 대 전	72,705,800 72,705,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북1,4,6], 임차인 있음 [목북3], 매각 외비닐하우스있음 [목북1,4], 제시외건물포함
2012타경 13126	2	영암군 시흥면 구산리 2195-3 1011.5㎡ 대 영암군 2195-4 1501.7㎡ 대	대 대	22,922,250 22,922,25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997	1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904-1 264㎡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11,702,900	일괄매각, 수목포함 [목북2,3], 매각 외 제시외건물있음
2012타경 14068	1	영암군 서호면 영암리 152-2 1186㎡ 대	대	10,436,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266	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9-10 3018㎡ 대	대	485,89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통소 379-11 3004㎡ 대	대	485,89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통소 380-10 2965㎡ 대	대	483,64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통소 380-11 1398㎡ 대	대	477,36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334	1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81 2671㎡ [일부묘지] [공유자고광일빌754-114부] 대 영암군 66-4 932㎡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전 영암군 59 2169㎡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전 영암군 831-4 706㎡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물건번호1: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전 전 전 전	7,023,280 7,023,280	일괄매각, 일부묘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소재로 분묘묘지건물있음 [목북1]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2타경 14334	2	통소 825-3 86㎡ [현황도로및양어장]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전 통소 825-2 489㎡ [현황양어장]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전 통소 825 655㎡ [현황양어장]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전	전 전 전	1,391,010 1,391,010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제한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488	1	무안군 물탄면 구산리 83 1326㎡ [공유자지] 일남지분2호의1전부	답	9,30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2012타경 14556	2	통소 94 896㎡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통소 신14 2281㎡ [목북1과지분내용동일]	답 임야	6,781,500 6,781,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북1],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2012타경 14566	1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산31-1 5009㎡ [공유자지] 산조동지분3호의1전부	임야	2,671,520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2012타경 14778	2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산31-1 815㎡ 전	전	2,671,52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546	1	신안군 지도읍 내당리 1796-3 1970.4㎡ 전	답	13,595,76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1,594,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546	1	신안군 흑산면 흑도리 106 1호 지하1층122.46㎡ 지상122.46㎡ 지상 3층122.46㎡ 제시외 차량 등 78.9㎡	근린시설	581,226,960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임차인있음
[기타]					
2012타경 1901	1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255-1 1동호[현황:황근콘크리트및판별지붕] 1층1,275.88㎡ 2층954.71㎡ 3층153.36㎡ [1-3층각방탈양] [제시외건물포함]	모지관련시설	1,501,854,740	일괄매각, 분묘소지,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제시외건물포함, 임차인있음,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목북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2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3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4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5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6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7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8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9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0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1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2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3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8[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49[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0[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1[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2[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3[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4[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5[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6[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7[공유자지]채경지분2호의1전부, 목북158[공유자지]채경지분2호